

익산 폐석산 폐기물 침출수 처리 해법 찾는다

(주)플랫폼 더클린, 처리 시연회 미생물·톱밥 투입 중금속 제거 비소·카드뮴·수은 검출 크게 줄어

불법 폐기물 침출수 문제로 악명이 높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처리문제해 해법을 찾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침출수 처리 전문업체인 (주)플랫폼 더클린(Platform The Clean)이 특수 개발한 미생물로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은 ○○환경이란 회사가 수 년동안 약 150만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을 반입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석산 복구라는 명목으로 40여개 업체로부터 불법 폐기물을 들여왔지만 사실상 방치하면서 침출수 문제로 전국적인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매립한 폐기물 가운데는 불법 화학 폐기물도 20톤 가량 섞여있어 1급 발암물질 등 다량의 중금속이 침출수로 배출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년전 침출수 검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무려 332배나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불법 폐기물 제거명령에도 버티고 있는 해당업체를 대신해 매일 1000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플랫폼 더클린이 백기사로 나섰다. (주)플랫폼 더클린은 지난 6일부터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현장에서 침출수 처리 시연회를 시작했다. 시연회는 15일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미생물로 처리한 침출수 샘플을 전북도 실험과연구소로 보내 효과를 검증받게 된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미생물을 톱밥과 혼합해 썩씨 42도 상태에서 침출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의 중금속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5월과 7월 세차례에 걸쳐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를 대상으로 시험 처리한 결과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

가장 위험한 비소의 경우 처리전에는 108.70mg(기준치는 45mg 이하/kg당) 이던 것이 처리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염분도 처리전 11.71%이던 것이 처리후에는 기준치(공정 기준치 2.0% 이하)보다도 83.5%나 낮은 0.33%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던 카드뮴·수은·납·크롬·니켈 등 중금속 대부분도 처리시험후 검출되지 않았거나 소량 검출되는 결과를 얻었다.

(주)플랫폼 더클린 정은재 회장은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쌍방울과 KH그룹의 후원으로 시



(주)플랫폼 더클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침출수 처리 시연회를 위해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회를 갖게 됐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악의 침출수 현장인 이곳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곳 폐기물은 매년 5만톤씩 처리해도 30년이 걸리고 비용도 3000억원이 든다"면서 "이번 시연회 성공으로 익산시의 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고품질 "배" 베트남 수출



정읍배의 베트남 수출을 축하하는 상차식이 지난 6일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다.

정읍 배 170t 베트남 수출...1차 56t 선적

시, 해외 판촉 마케팅 활동 성과

정읍시의 특산품인 고품질 '정읍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정읍시는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는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상차식을 통해 친환경 정읍 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맛있는 배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수출하는 배는 170t이다. 우선 1차로 56t(약 1억4600만원)이 수출길에 오른다.

시는 그간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수출

법인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의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이정진 대표는 "정읍 배는 공선화원들의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당도가 뛰어나 수출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배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복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공공 데이터 한 눈에 확인하세요 '빅데이터 포털' 오픈

군산시가 공공정보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빅데이터 포털'을 오픈했다.

공공빅데이터 포털은 군산시 인구나 경제, 관광, 취업 등 흩어져 있는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공공데이터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했다.

공공빅데이터 포털은 시 홈페이지 메인 하단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되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다양한 그래프와 지도 등 시각화 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한눈에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자료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관광축제분석과 교통빅데이터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결과물도 '공공빅데이터 포털'의 빅데이터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데이터 개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1등급(전국 최우수)을 받았다.

/군산=박익섭 기자 nogusu@

순창군 농가 100곳에 발효미생물 무상 공급

순창군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100곳에 자체 배양한 식품용 발효미생물(사진)을 무상 공급한다.

순창군은 장류 제조용 황국곰팡이, 발효주 제조용 효모, 청국장용 고초균, 요구르트 및 치즈 제조용 유산균, 발효식초균 등 5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들 발효미생물은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에서 직접 배양한 것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10년 간 발효미생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며 "군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가에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업체 위생점검

고창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위생점검은 고창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려 관내 축산물 취급 업체 중 최근 1년간 행정처분업체 및 3년간 위생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등 적정 처리여부 ▲식육 취급 시 화농이나 피부병변 등이 있는 식육 제거여부 ▲기 행정처분 업소의 위반내역 개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로 생산·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